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발행인의 데스크



## 625 동란 속의 젊은 장군 백선엽

다부동과 낙동강에 걸쳐 있는 전선에서 한 달 내내 백병전을 펼친 백선엽 장군은 같은 중대원(80명)은 물론 대대원(320명) 대다수가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전투 개시 한 달여 뒤인 9월 16일 전세를 뒤집은 국군과 미군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북진을 거듭했다. 38선을 넘어 행군하던 중 사단장 지프에서 내린 백 장군은 82mm 박격포를 어깨에 매고 가던 부하에게서 포신을 건네받아 같이 짊어지고 한참을 걸어가다.

무게가 20kg은 족히 돼 보이는 무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백 장군의 모습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노병들은 말하고 있다.

그 뒤로도 백 장군이 부하 사병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모습을 몇 번 더 목격할 수 있었다고 노병들은 기억하고 있다.

“부하를 무척 아끼던 사단장님이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에 나섰던 이동철(87·대구시 북구) 용은 14일 인터뷰에서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전투 당시 국군 1사단 소속 만 17살 소년병이었고 백 장군은 30살 사단장이었다.

대구 앞산에 있던 훈련소에서 M1 소총으로 실탄 8발을 쏘 본 게 훈련의 전부였던 터라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비규환이었다.

30여년 만의 가뭄과 낮 최고 37도에 이르는 그 해 8월 무더위조차 한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는 느낄 틈이 없었다.

다부동과 낙동강에 걸쳐 있는 전선에서 한 달 내내 백병전을 펼친 백장군은 같은 중대원(80명)은 물론 대대원(320명) 대다수가 전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백 장군 별세 소식을 듣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한 노병은 다부동에서 이루신 승리와 영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방명록에 썼다. "사단장님 부하였던 사람으로서 최근 고인의 현충원 안장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마음 아프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고 답담

하게 말했다.

### 시대가 영웅을,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혹자들은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와 영웅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 상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나타나야만 할 때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적절한 인물이 영웅으로 부각되는 것이며 시대의 흐름 상 동시대가 청원하여 균형잡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데도 한 지도자가 기치를 들고 주변국으로 세력을 펼쳐서 나가기 시작

하면 그가 곧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침략적인 영웅이 나타나면 이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며 침략을 방어해 낼 영웅시대 인물을 보고 우리는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인물은 모두 정답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에 해당되는 인물은 이순신, 넬슨, 처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넬슨은 나폴레옹의 영국 침략, 처칠은 히틀러 유럽 침공이라는 적국이 없었다면 역사상 충실하나 평범한 군인 또는 정치인으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적국의 침략이 있었기에 당시 자신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방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해 내었고 그것이 곧 영웅적인 업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에 해당되는 인물은 알렉산더, 카이사르, 징기스칸을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쟁 영웅들 보다 세계사를 주도한 큰 영웅들이 많은데에는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는 성공한 침략자들이기 때문이다.

위에 영웅들은 당시에 당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동시대 최대 세계정복과 정치혁명이 일어날 수 없었기에 대영웅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서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이 글은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히 보인다. 어찌 보면 영웅이라는 사람도 따져보면 별것 아니라는 뉴앙스도 풍긴다. 백선엽 장군을 두고 '다부동 전투의 영웅', '한미동맹의 창시자'라고 그의 공을 기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를 '만주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대통령을 두고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공은 간 곳없고 과는 부각되는 한국 특유의 경직성에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무엇인가 딱딱하다는 것은 주검이 그렇듯 좋은 것이 아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다양성을 수용해주어야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배고픔이다. 배를 굶아 본 세대들은 박대통령이 한국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공에 감사한다. 마찬가지로 6.25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속에서 백선엽 장군의 용기와 모범을 직접 본 이 동철용의 증언이 나를 감동시킨다.



## 文대통령 향해 '신발 테러' 한 50대 男... "치욕 느껴봐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이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오후 3시20분경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연설 등의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설 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50대 정모씨가 구두를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

국회 직원들이 정씨에게 달려가 제지하자 정씨는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고함을 쳤다.

신발은 문 대통령과 거리가 먼 곳에 떨어졌고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국회 경비대는 오후 3시31분경 정씨를 체포해 출동한 경찰에 신발을 넘겼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경 개원식 방청을 하러 국회에 갔다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사당 밖에 머무르다 일을 벌였다.

그는 “방청석에서 신발을 던지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방청을 못하자 밖에서 기다린 뒤 문 대통령이 나오자 신발을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